

SKK BUSINESS SCHOOL NEWSLETTER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소식지 2022.07 Vol.7



Contents

3

**경영대학
FOCUS NEWS**

동문회 소식
기부금 소식

7

**교육프로그램별
NEWS**

경영학과&일반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경영전문대학원(EMBA)
경영대학원(IMBA)
핀테크MBA
W-AMP 최고경영자과정

29

**FACULTY
NEWS**

교수 동정
신임 교원소개

36

**DONATION
NEWS**

동문회 소식
기부금 소식

39

**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발행일

2022년 7월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주소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발행인

안희준

김원갑 동문(경영72)/정영화 동문(경영72), 「건봉·월하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 1월 13일(목), 경영대학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건봉·월하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건봉·월하 장학금 수여식에는 기금의 기부자인 김원갑 동문(경영학과 72, 현대종합상사/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정영화 동문(경영학과 72, 월하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안희준 경영대학장, 이종은 부학장/경영학과장, 장영봉 글로벌경영학과장, 이증상 경영대학동문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건봉·월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김윤, 정유진(이상 경영학

과), 박종운(글로벌경영학과) 총 3명이다. 이날 김윤(경영학과21) 학생은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 간 소통의 역할이 비대해지고 있는 현재, 컨벤션 경영 산업에서 지구촌의 협력과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으며, 정유진(경영학과20) 학생은 공인회계사의 꿈을 위해 더욱더 학업에 매진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원갑 동문은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이 큰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답했다. 정영화 동문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열심히 돕겠다”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왼쪽부터 이증상 사무총장, 정영화 동문, 김원갑 동문, 김윤 학생, 정유진 학생, 박종운 학생, 안희준 학장, 이종은 부학장, 장영봉 글로벌경영학과 학과장

2022년 겨울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축하영상

안희준 경영대학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특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학업에 정진하고 성장해온 졸업생들의 학사과정을 격려했다. 또한 동문이 된 졸업생들에게 후배들과 대학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김동필 경영대학 총동문회장은 코로나19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졸업을 마친 학생들을 축하했다.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졸업생들에게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와 학생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모교의 위상에 자부심을 가지고 졸업 후에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후배들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신상훈 경영학과 70학번 동문은 졸업은 새로운 시작라는 것을 사자성어 줄탁동시(倅啄同時)에 비유하여 축하했다. 사회라는 단단한 껍데기에 좌절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되어 스스로 부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고 거듭 강조하며 졸업생들에게 졸업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안희준 학장, 김동필 총동문회장, 신상훈(경영70) 동문

2022 한국-홍콩 국제 매니지먼트 컨퍼런스 개최

지난 4월 8일(금), 우리 경영대학에서 홍콩중문대와 매니지먼트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공식명칭: Korea-Hong Kong International Management Conference 2022) 우리 대학의 매니지먼트 전공의 대학원생 2팀(김윤, 오은지 원우)과 홍콩중문대 2명(Xin Zhang&Kaili Yu, Hong Zhang)이 본인의 페이퍼를 발표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도현 교수, 김안드레아 교수, 김영상 교수, 김상균 교수, 배준형 교수, 조성희 교수, 신지선 교수 등 매니지먼트 전공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2022 한국-홍콩 국제 매니지먼트 컨퍼런스에서 전공 교수들을 비롯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매니지먼트



트 전공주임인 김안드레아 교수는 “매니지먼트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이러한 국제 컨퍼런스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1-2학기 경영대학 Dean's List 수여식 개최

2021-2학기 경영대학 Dean's List 수여식이 5월 3일(화) 오후 2시 경영관 504호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019-1학기에 대면으로 진행한 이후 2년만이다. Dean's List는 평점 4.4이상인면서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들에게 수여하며, 2021-2학기에는 경영학과생 72명, 글로벌경영학과생 41명 등 총 113명이 선발되었다.



안희준 경영대학장

이날 안희준 경영대학장, 이종은 부학장(경영학과장), 장영봉 글로벌경영학과장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안희준 경영대학장은 “학점이 대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학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냈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이러한 성취는 큰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Pride를 갖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경영대학 역시 경영관과 국제관에 Dean's List 대상자들의 명단을 전시하는 대형 액자를 설치하여 여러분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Dean's List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서림 경영학과 학생

문서림 경영학과 학생과 황준하 글로벌경영학과 학생이 각각 대표 증서를 수여받았다. 문서림 학생은 “20학번으로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어야 했다. 이렇게 학교에 올 수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 Dean's List에 이름을 올린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같은 기쁨을 누리는 학우들에게도 축하를 전한다. 학장님과 학과장님들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훌륭한 가르침 속에 Dean's List 대상자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며 수상의 영광을 전했다.



황준하 글로벌경영학과 학생

이어 황준하 글로벌경영학과 학생은 “지난 학기 5개의 조별과제를 하면서 너무 힘든 나머지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 그 당시에는 학점 때문에 버틴다는 생각이었는데, 인턴을 하고 있는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조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Soft Skill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었고, 그게 사회생활에서 그대로 도움이 되었다. 다들 학업에 바쁘시겠지만 Hard Skill과 Soft Skill, 네트워킹 능력 등을 놓치지 않고 갖고 닦아 사회에 진출

출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삼삼오오 모여 배부 받은 증서와 부상을 들고 서로 사진을 찍고 나서야 강의실을 나섰다. 온라인 수여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밝은 얼굴과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일상회복의 설렘이 봄기운처럼 다가온 2021-2 Dean’s List 대면수여식의 풍경이었다.

경영대학 2022-1학기 체육대회 성료

경영대학은 5월 6일(금),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대운동장 및 농구장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 약 51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축구, 혼성 피구, 줄다리기, 장애물 달리기, 혼성 계주, 미니 게임, 단체 줄넘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무진 제22대 경영대학 학생회장은 “올해 약 500명의 학우가 참석하여 역대 최고의 참여인원임을 기록했다. 체육대회 준비 당시 코로나 방역지침의 완화 기로에 있어 걱정이 많았지만 취식 관련 규제 및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경영대학 학우분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로희 부학생회장은 “22학번 신입생을 포함한 경영대학 모든 학우가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체육대회로 인해 단절되었던 선후배, 동기들 사이의 활발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행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김모 학우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체육대회가 3년 만에 진행되어 너무 반갑고 즐거웠다. 반끼리 하는 축구, 농구, 피구 등의 종목들 통해 반의 단합력을 높일 수 있었고 그간 교류가 없었던 학우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글로벌경영학과에 재학중인 최모 학우는 “경



영대학 안에 있는 글로벌경영학과로 입학했지만 경영학과와는 교류하는 행사가 거의 없어 같은 단과대학이지만 접점이 없는 부분이 아쉬웠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경영대학에서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신입생 및 재학생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친밀감을 형성하며 경영학과와 글로벌경영학과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학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1학기 Job학다식(진로콘서트) 행사 개최



경영대학은 선후배 네트워크의 강화 및 신입생 및 재학생의 진로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Job학다식(진로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 <Job학다식>은 일방향 강연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졸업선배 매칭 및 오프라인 만남 주선으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다.

Kick- OFF 개념으로 대표 졸업선배가 강연하는 오프닝데이(진로콘서트) 행사 진행 후 진로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먼저 진로콘서트는 4월 27일(수) 경영관 33B101호에서 진행되었으며 경영학과 재학생 10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멘토로는 유승환(경영09, 기아차)/강원경(경영09, 삼성물산)/임채영(경영10, KCB)/김지홍(경영13, LG화학) 졸업선배가 참석하였으며 각 분야 소개, 취업 팁 및 업무 소개 PT, 토크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멘토로 참석한 김지홍(경영13, LG화학) 졸업선배는 “3~4학년만 듣는 취업강연이 아닌 1~2학년도 함께할 수 있는 진로콘서트였기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다. 내가 학교 생활하며 못해본 것이나 좋았던 것들을 후배들이 해봤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연락해주는 학생들에게도 정성껏 답변 드리고 우리 학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경영학과 학생은 “경영학과에 입학하였지만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하는지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진로콘서트에 관한 행사 알림을 받고 관심이 생겨 참여하게 되었다.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 좋았으며 여러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경영대학 정책집행국장은 “행사를 기획할 때 ‘진로’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선배의 일방적 강연이 아닌 토크쇼 형식으로 서로간 소통하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영학과 학생들 덕분에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경영학과에서는 <Job학다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소속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졸업 후 멘토 활동을 유도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영학과 & 일반대학원 소식

2022 경영학과 신입생을 위해 새내기 새로 배움터 실시



지난 2월 23일(수), 경영대학은 2022 경영학과 신입생을 위해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실시했다. 경영학과 신입생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친밀감 형성과 반동기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학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600주년 기념관 지하2층 새천년홀에서 진행했으며 경영학과 21학번 반장단 20명과 경영학과 22학번 신입생 213명, 총 233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희준 경영대학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신입생 모두를 환영한다”며 “대학생활동안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본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 반배정 결과를 공개하며 학생회 및 반장단 소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계속해서 킹고원단의 공연과 반별 단체 사진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전에 접종증명서/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며, 건물 출입에 앞서 자가문진표 및 출입명부 작성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전이훈(경영19) 학생, President's List 선정 관련 인터뷰

자기주도성, 창의, 도전 정신 함양을 통해 타인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형 인재에게 수여하는 President's List에 경영학과 전이훈(19) 학생이 선발되었다. 전이훈 학생은 2020년 경영대학 창의장학생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데이터 청년 캠퍼스', '임팩트 베이스 캠프', LINC+사업단 창업동아리 선발, Service Learning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현재 팀 디어스크 대표를 맡고 있으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자 하는 전이훈 학생을 만나 President's List 선정과 관련된 학생성공 스토리에 대해 자세히 들어 보았다.



Q 안녕하세요, 전이훈 학생, 지난번 창의장학생 선발 이후 President's List로 선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졸업 전 꼭 이루고 싶던 또 하나의 성과를 이루게 되어 정말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상식 날은 제가 다른 일정이 많아서 정신 없는 하루였는데, 이렇게 학우 분들과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되니 이제서야 실감이 납니다. 조금 늦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제 가능성을 알아봐 주시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학장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선발 안내 연락이 올 때 하필 도서관에 있어서, 발소리 내지 않고 나가서 받으려 애쓰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다행히 전화가 끊기기 전에 밖에 나갈 수 있었답니다!

Q President's List로 선발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떠한 계기로 신청하였으며, 선발 절차는 어땠나요?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번이 되었는데, 짧은 학교생활을 잘 보냈는지 스스로를 검증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스토리를 간략히 말하자면, 절반 정도는 '팀 디어스크'에서 활

동한 경험이고, 나머지 반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도전해 본 경험입니다. 전자에서는 다른 곳에서 얻기 힘든 실전 경영 경험을 키웠고, 후자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제 적성을 찾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노력하였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 지점을 찾고 그 결과물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던 것이 '수기치인'의 모델과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PL 선발은 크게 학생성공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생성공 스토리 공모전'과 각 단과대학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전자에 먼저 지원했으나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학생성공센터에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경영대학에서 선발하는 PL 지원에는 더욱 공을 들였고, 덕분에 두 번째 기회는 잡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참여, LINC+사업단 창업동아리 선 발, Service Learning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여한 활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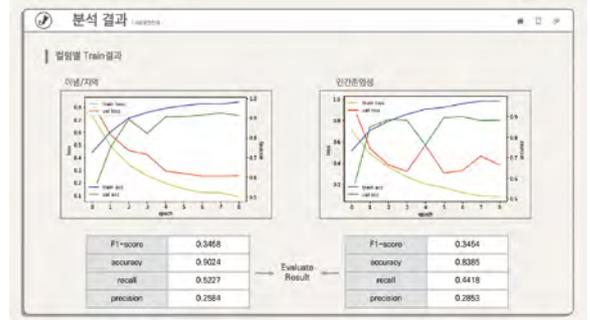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뭐든 해 보자!"가 2021년의 제 목표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제 적성을 찾을 최적의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경험해 보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의 '팀 디어스크'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온라인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업무가 복잡화되었기 때문에 보다 확고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해당 목표에 공감하는 팀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경험을 살려 우리 상황에 맞는 협업 툴을 도입하고, 업무 매뉴얼을 세우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정리하는 게 처음에는 시간이 아깝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 업무 효율을 훨씬 높여 주고 있다는 게 체감됩니다.



Service Learning에서 운영한 "쓰기치인" 프로그램 홍보물

1학기에는 학교 교무팀과 함께 '쓰기치인'이라는 플로깅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음에서 알 수 있듯 '수기치인'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인데, 참가자들이 플로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단련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환경 정화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까지 이바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재학생은 물론 지역주민, 인근의 자영업자 등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에 선한 가치를 끼치는 일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데이터 청년 캠퍼스 결과 산출물 "CNN모델링을 활용한 혐오 댓글 판별기"

제가 관심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데이터과학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인 '데이터 청년 캠퍼스'에 참여했습니다. 학교 바깥에서 더 심도 있는 배움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실력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모인 '임팩트 베이스 캠프' 빅워크 팀 회의 현장

최근에는 '헤이그라운드'를 운영하는 '루트임팩트'의 '임팩트 베이스 캠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들을 운영하면서 문제해결 역량을 길러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걸음 기부 앱 '빅워크'의 유저 재접속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유저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탈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이를 개선할 앱 프로토타입을 설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셜임팩트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활동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장단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제 스스로 대단한 극복을 이루었다기 보다는 다른 분들로부터 받은 도움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제 자신은 오히려 흔들림과 후퇴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국만 아니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

있을 텐데”라는 생각만 수천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함께 활동하는 분들과 유대감을 쌓는 게 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 서로를 신뢰하고 도움에 개방적인 자세를 갖추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공유하면서 서로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좋은 솔루션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어스크는 업무 상황을 카카오톡에 의존하여 공유하였는데, 모든 업무가 온라인 채널로만 교환이 이루어지다 보니 까먹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거리낌 없이 공유하였고, 그 솔루션으로 다른 팀원들이 온라인 협업 툴을 도입해 준 덕에 많은 일들도 까먹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어려운 자리에 나가지만 하면 입 밖으로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제게 ‘비대면’이라는 현재의 상황은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더라도 편안한 제 방에서, 모니터에 갇힌 상대방과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 더욱 노력했고, 덕분에 제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는 찬스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

Q 전이훈 학생의 5년후, 10년후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한 게 한편으로는 무척 부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한 진로를 찾아 활동한 것이 아니어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지난 경험들을 돌아보며 제가 좋아하던 순간들의 키워드를 뽑아 보고 있는데, 아마 ‘데이터 리터러시를 결집한 경영학’이 그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무나 컨설팅, 생산운영관리와 같은 분야가 되겠죠?

최연수(경영 17)학생, 성공최우등 졸업상 수상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학생성공의 First Mover 역할 및 롤모델 발굴을 목표로 단순성적우수가 아닌 종합적인 사고를 지닌 창의적 학생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학내활동 및 성공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도전적인 연구 및 학습 계획 및 성취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생성공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제는 그 키워드에 맞춘 활동들을 해 나가며 본격적으로 가치 있는 사회인이 될 준비를 해 보고 싶어요. 미래의 제 모습을 지금 벌써 상상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조금씩 제게 맞는 분야를 찾으며 그때 그 순간을 항상 즐기고 싶습니다.



왼쪽부터 신동렬 총장, 전이훈 학생, 안희준 경영대학장

Q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의 학우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시작된 코로나19 시국이 비대면 사회의 등장을 앞당겼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낼 기회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요.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스킬,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나 인사이트가 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이건 자신만이 가진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역량을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실용적인 조언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난 학기 “경영 데이터의 시각적 분석” 강의를 신설되었는데, ‘Tableau’라는 데이터 시각화 툴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과 떨어지기 어려운 경영학 공부에는 물론 다른 외부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 무척 유익하였습니다. 차별화된 하드 스킬을 원하는 학우 분들께 수강을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최연수 학생은 학부시절에 여러 번의 성적우수장학금을 받기도 했는데,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발표, 협력, 토론 등의 수업을 선택하여 능력을 키워 실력 발휘를 했다. 또한 영어토론동아리를 통해 영어토론대회, 각종 강연 참여, 자기설계융합전공을 통한 인지과학 복수전공 등 여러 대외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유학을 준비하며 기회가 된다면 창업에 도전하고 싶다는 최연수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17 창업 페스티벌 참여 모습

Q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여름에 졸업한 경영학과 17학번 최연수입니다. 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다양한 학문에 관심이 많으며 취미는 요리, 토론, 글쓰기입니다. 4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경영대학 학우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고, 저의 인터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2021년 학위수여식에 학생성공상 확장상을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경영대학에서 단 1명에게 수여되는 의미 깊은 상을 제가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교수님들께서 직접 심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의 지난 활동들과 비전들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앞으로도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진취적인 성공인의 모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토론대회의 모습

Q 영어토론동아리, 자기설계융합전공 복수전공 등 다양한 대내의 활동을 하였는데, 이제까지 했던 활동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도 소개해주세요.

대학교 재학 4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영어토론동아리를 통한 영어토론대회 참여, 각종 강연 참여, 자기설계융합전공을 통한 인지과학 복수전공, 두 번의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를 통한 심도 있는 연구 진행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2학년 때 영어토론동아리 SKEDA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고, 자신의 주장을 영어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경험을 통해서 영어 실력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시각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그것의 타당성을 고려해 보고, 이에 맞는 찬반 의견을 내야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확립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SKEDA를 통해서 서울오픈 영어토론대회를 알게 되어, 서울오픈 영어토론대회에 참가하여 Finalist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오픈이 외국 학생들도 참여하는 큰 대회인 만큼,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해외 대학생들과 영어로 토론하면서 서로 활발히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뜻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술행사 및 강연에 참여하였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성균관대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러 강연을 하는데, 시간이 맞고 관심 있는 주제의 강연이 열리면 자주 학교에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경영, 심리학, 과학, 철학 등 다양한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면서 다방면의 지식도 쌓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새로운 질문들을 마주하고 이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강연들을 들으면서 저는 인지과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경영대학 학우분들도 학교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강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넓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강연을 접하면서 저는 인간의 뇌와 마음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분야를 학부 수업에서 더 공부하고자 하였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인지과학이라는 학과가 존재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융복합 교육의 일환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자기설계융합전공 제도가 있어 다행히 이를 통해 인지과학을 복수전공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설계융합전공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학과 및 커리큘럼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학과로 개설되지 않은 융복합 학문이라면 자기설계융합전공을 통한 복수전공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에 참여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는 교수님의 승인 아래, 자신이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한 학기 동안 깊이 있게 개별 연구를 하고 이것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연구학점제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주로 진행하지만, 저는 자연과학과 철학 분야의 연구에 각각 한 번씩 참여하였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자유지와 결정론'에 대해서 주로 탐구했으

며,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학부 수준을 넘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 학부시절 때 여러 번의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았는데, 본인만의 비법이 있나요?

사실 저만의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아마도 제가 정말 관심 있고 열정을 쏟을 만한 수업들을 위주로 수강하였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성적은 누군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반드시 좋은 성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 학기 시작 전에 각 과목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싶다는 계획을 하는데,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각 과목에서 제가 얻어 갔으면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발표, 협력, 토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부 수업에서 그러한 능력을 더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에 발표와 토론이 많고 팀플이 있는 수업들을 위주로 수강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발표 및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경영학과 수업들의 경우, 발표와 팀플 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수업들을 많이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향상시키고 싶었던 점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점을 많이 발휘하고 향상시키고자 학부 수업에서 노력한 것이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균 최우등 졸업장(최연수 학생)



강연 모습

Q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현재는 제가 관심을 가진 인지과학 및 철학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 해당 분야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생겨,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창업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의 학우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생 때 대학생활과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 그때의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할 후배들에게 제가 대학생활을 통해서 느낀 점을 짧게나마 전달하고자 합니다. 후배들과 대화해 보면,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 동안 아주 많은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좋은 대학생활'이라는 것의 매뉴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과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보다는 대학생활 동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회와 변화가 있지만,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일과 목표한 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 모두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기회는 쉽게 만들 수 없지만, 주위에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 게시판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선배들이나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기회를 통해서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좋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학우분들이 기회를 만들어내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대학 학우분들께 저의 인터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민지(경영 17)학생, 학생성공상 학장상 수상 관련 인터뷰

Q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8월, 하계 인턴십 전환 후(좌), 현재 재직 중인 모습(우)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경영학과 17학번이고, 지난 2월 졸업과 함께 카카오에 입사해 현재 아이템기획파트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재직 중입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기획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직 졸업도, 일도 전부 실감나지 않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Q 2022년 학위수여식에 학생성공상 학장상을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제 삶에서 '성공'이란 단어의 정의는 계속 변하겠지만, 이번에는 '나를 제일 잘 아는 것'에 대한 상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대학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는 결코 지금의 저를 한 번에 떠올릴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것 저것, 잘하든 못하든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뭐든 해 보려고 했고, 그렇게 다섯 번 중에 하나 좋아하고 재미있는게 나타나면 거기에 흠뻑 빠져 내가 왜 좋아하는지, 이걸로 뭘 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영대학 학생회에서 경험했던 홍보 직무, 학회에서 배운 마케팅 로직, 그리고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었던 다양한 산학협력 전공수업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존재했기에 저는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었고, 비로소 저를 제일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걸 비단 직무나 학업과 관련된 활동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저는 러닝과 클라이밍, 헬스 모두를 도전해봤는데 그 중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건 헬스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번 받은 PT를 통해서 운동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됐고, 이는 다시 SNS 운동 계정, 운동 원데이 클래스 등의 다양한 활동들로 연결되면서 저라는 사람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됐어요. 마음가짐, 태도 등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실제 제 자소서 요소 중 하나로도 활용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내가 어떤 것에 아주 작은 '흥미'라도 보이게 됐다면, 꼭 잡고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는 생각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들어있을 거예요.

Q 농산물 직거래 스토어를 직접 런칭하여 경영학도로서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었는데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요?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 라는 걸 깨닫고 체감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물론 제가 스토어 런칭을 결심하게 된 건 그동안 학회에서 수없이 작성했던 기획서들이 그저 하나의 문서로만 그치는 게 아쉬워서, 직접 실전 기획을 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리 그동안 배운 모든 이론을 다 접목시켜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경우의 수를 준비해도, 실전에서는 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이렇게까지 우리 제품이 사람들에게 안 알려질 수도 있구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또 이렇게나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나날이었고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빠르게 찾아서 즉시 실행에 옮겨야만 했어요. 일단 내일도, 모레도 스토어는 무탈히 운영돼야 했으니까요.

그 순간마다 제 원동력이 되어 주었던 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잘게 쪼개서 생각하기. 걱정도, 목표도 전부 쪼개어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한 번에 수습하려고 하다 보면 좀처럼 갈피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상황이 가진 요소들을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에 집중해 처리하면 어느 순간 모든 게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목표도 마찬가지로. 큰 숲을 먼저 그리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 숲에 그쳐 있으면 현실감도 동기부여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숲을 다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로 다시 쪼개는 작업을 합니다. 스토어를 예를 들면, 한 달 목표 매출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주별/일별 목표 매출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거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태산도 결국 티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무엇이든 쪼개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 수확한 딸기(좌)와 패키징, 제품 촬영까지 직접 진행했던 스토어 브랜딩(우)

Q 학교 다닐 때 활동했던 대내외 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거나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교내에서는 학회와 산학협력 수업을 추천하고 싶어요. 흥미를 찾았다면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때 학회

에서는 보다 더 실전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논리를 정립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학회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겼다면 그 분야의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건 모두 같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과정이기에, 본인의 관심 분야를 확실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산학협력 수업은 실제 우리의 아이디어가 실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또 실무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현실성을 반영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수업에서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수업의 권장 대상이 대부분 고학년이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의 많은 지식과 경험, 열정을 모두 가진 학우분들이 많아서 팀플 중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진귀한 경험을 얻기도 했어요.

교외에서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추천해요. 인턴 경험 이전에, 조금 더 다양한 영역에서 나의 흥미를 알아보고 또 사회생활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일머리나, 대인관계에서의 언변 등 내가 의외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발견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곳에서 직무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고요. 더불어 작은 용돈 벌이로 또 다른 내 관심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전 학업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소소한 알바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Q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언젠가는 꼭 저만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서,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서비스를요. 아직은 개발의 기초부터 닦고 있는 신입 기획자지

만, 언젠가 꼭 기회가 되었을 때 과감히 제 꿈과 서비스를 택할 수 있는 기획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늘, 지금의 열정과 설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는 이 설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진 역량과 꿈으로 세상이 조금이나마 살기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IT 서비스가 낳는 가장 큰 가치는 세상을 연결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기에, 저 역시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의 학우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아직 모르시겠다고 하면, ‘하고 싶다’의 순간이 아니라, ‘어, 해 볼까?’의 순간을 잡아 보세요. 사실 “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의 무의식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아직 나 스스로조차 인지하지 못했지만, 무의식은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눈과 귀를 기울여 보세요. 대성로 게시판에서 우연히 눈에 확 들어오는 벽보를 발견했다면, 학과에서 홍보하는 새로 개설된 수업이 이상하게 눈에 밝힌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생각보다 뜻미지근한 경험이 된다면 그 나름대로, 운이 좋아 정말 나와 잘 맞는 길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시작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실천에는, 생각보다 거창한 계획과 생각이 필요 없답니다.

이미 저마다의 멋진 길을 걷고 계실 경영대학 학우분들의 신중하고도 과감한 선택을 응원할게요. 각자의 뚜렷한 색으로 사회에서 다시 만나 서로를 격려하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며, 힘든 시기이지만 모쪼록 모두 건강 잘 챙겨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김한민 경영정보 전공 박사,
경영대학 성적/연구력 우수상 학장상 수상 관련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원우님, 본인 소개(연구분야 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민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정보를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니다. 박사 학위 논문은 정보 정확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차이에 따른 정보회피의 결정요인을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현재는 가짜뉴스,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관심 분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성적/연구력 우수상 학장상을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정진하라는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교수님들, 직원분들, 대학원 동료들에게 많은 지원과 배려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박사 학위 취득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상기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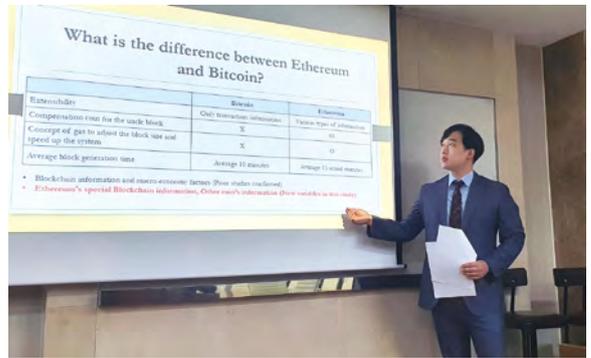
오늘날, 온라인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주체가 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박사 학위 논문이 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교수님들과 학위 논문을 발전시켜 저널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와 함께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의도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㉕ 그동안 학업, 연구 과정에서 가장 보람되는 일이 있었나요? 또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요?

학업을 진행하면서 우수 박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가장 보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박사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은지 박사과정생,
홍콩 중문대와 매니지먼트 국제 컨퍼런스 참여 관련 인터뷰

지난 4월 8일(금)에 우리 경영대학에서 홍콩중문대와 매니지먼트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우리 대학의 매니지먼트 전공의 대학원생 2명(김윤, 오은지 원우)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각자의 연구분야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국제 컨퍼런스가 지속되길 기대하며, 이번에 참여한 오은지 원우(매니지먼트 분과 박사과정)의 연구분야와 페이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학위과정 중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역지로 무언가를 급하게 진행하려 하기보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㉖ 앞으로의 진로가 궁금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강의 경험, 연구 논문 게재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㉗ 마지막으로 경영 석,박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원에서 학업을 지속해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독립적인 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조금하게 생각하기보다 성실하게 천천히 학업을 진행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연구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주장도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연구분야 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은지라고 합니다.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분과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고,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SHRM)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기업 내의 인사제도, 인적자원의 구성이나 그 구성의 입출과 같은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요인들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

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에는 집단적 이직(collective turnover), 다양성(diversity)과 같은 인력 구성(workforce composition)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Q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 계기(동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매니지먼트 전공 교수님들께서 컨퍼런스 운영 방식 등의 세부 사항을 권위 있는 학술대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에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개최되는 국제 합작 학술대회이다 보니 원고 제출에 심적 부담이 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지도 교수님이신 김영상 교수님께서 연구를 제출해 보라고 독려해 주신 덕분에 이런 귀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이번에 발표한 페이퍼 <The influence of founder CEO's human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orce gender diversity and venture firm performance>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연구는 벤처기업 내 성별 다양성이 어떻게 벤처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벤처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CEO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이러한 부정적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임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EO의 인적자본은 구체적으로, 앙트레프레너 경험(entrepreneurial experience), HR 분야 업무 경험(HR managing experience), 그리고 동종 산업 경험(industry experience)까지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상호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성 문헌과 인적자본 문헌에 기여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이론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다양성 문헌 관점에서, 그룹 내 성별 다양성과 그룹 성과 간의 부정적 관계를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업 수준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관계를 가짐을 새로이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인적자본 문헌 관점에서, 성별 다양성이 인적자본 관점에서 하나의 잠재적인 자원(resource)이며, 이 자원이 CEO의 인적자본이라는 다른 종류(type)의 자원과 어떠한 상

호 효과를 갖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Q 페이퍼를 쓰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페이퍼를 쓰는 모든 단계가 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꼽아보자면, 가설이나 주장을 이론적 근거 하에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논문을 읽어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지 전개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최대한 노력하는데,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나 또는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 큰 목표는 지도 교수님이신 김영상 교수님 그리고 매니지먼트 전공 모든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 교육, 학생 지도 등 모든 면에서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실한 연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늘 꾸준히 연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목표로는 SHRM 내의 다양한 연구들을 더 많이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은 박사과정 동안 비정규직(contingent worker)이나 보상(pay and benefit) 쪽 연구 등을 수행해 보고 싶습니다.

글로벌경영학과 소식

양예란 학생은 학과주관으로 진행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KK FUND와 산학협력으로 진행한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예비 컨설턴트로서 우수한 자질을 보여주었다. 스티브 잡스의 연설에서 등장한 'connecting the dots'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하는 문구라는 양예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경영학과 17학번으로 입학해 이번 2022년도 2월에 졸업한 양예란입니다.

5년간의 학교생활 중 마지막 2년을 코로나 시국에서 보내게 되어 조금은 아쉽지만, 그 덕에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쌓아 상을 수여 받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Q 2022년 학위수여식에 학생성공상 학장상을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졸업하면서 상을 받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해서 굉장히 뜻밖이었고, 그만큼 기쁨도 컸던 것 같습니다. 흥미가 생기는 프로그램에 그때그때 도전해 본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서 보람차고, 학교를 떠나며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아 그 점도 매우 부듯합니다.

양예란(글경 17)학생,
학생성공상 학장상 수상 및 KK FUND-산학협력 공모전 1위

Q 학과주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였고 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요?

교내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다 보니,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 및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교내 프로그램으로는 서울시핀테크랩과 제휴하여 이루어진 Co-op 현장실습, 싱가포르행 해외 커리어 탐방 프로그램, LG화학과 연계하여 진행된 I-CORE 프로그램, 3M, LOOKO, Startup CEO Challenge, Kelley Case Competition, KK Fund 등 다양한 교내 공모전,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과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였는데, 저에게는 관심있는 분야와 주제를 선택하여 심층적으로 다뤄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비록 학생 신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방법에 한계가 있었고 결과물 역시 초기 설정된 목표 결과값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해당 활동을 통해 5년간 학교에서 배우면서 길러온 역량을 심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과, 지도교수님의 피드백 하에 팀원들끼리 머리를 맞대어 결과보고서를 다듬어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컸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 지난 2021년에 KK FUND와 산학협력으로 진행한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어떠한 공모전인가요?

해당 공모전은 싱가포르 벤처캐피탈 KK Fund와 산학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팀을 꾸려 글로벌 ESG 투자 동향을 리서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ESG VC 혹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제안 및 방향성을 제안하는 공모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Leader/Follower 그룹을 나누었고, 이들의 ESG 투자시장과 동향을 분석하며 ESG 투자 시 제한사항과 어려움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내용과 도출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초기 주제였던 구체적인 VC나 스타트업을 제안하는 대신, KCGS, GRI, Fund Assessment 등을 기반으로 투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이를 결과물로 제출하였고, KK Fund 측의 호평과 함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Q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총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공모전은 KK Fund 측 및 타 참가팀과 함께 진행된 여러 차례의 피드백 미팅 및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이루어졌고, 전 과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의 피드백 세션이 진행되어 굉장히 타이트한 보고 일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속한 팀의 팀원 전체가 인턴십이나 타 프로그램 등과 공모전을 병행하고 있었기에 공모전을 하며 스케줄 관리가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평일 비대면, 주말 대면으로 주 2회 고정적인 회의 시간을 잡아 WBS를 기반으로 스케줄을 짜 시간을 투자하였고, 각자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으로 팀원 간 R&R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팀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것은 물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컨설팅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기에, 단기적인 목표로는 제가 속한 업에서 필요 역량을 키워갈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진로나 목표로는 특정한 goal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진 않았고, 그때그때 흥미가 가는 활동들을 해 나가며 세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키워가는 동시에 본인의 관심사와 흥미분야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의 학우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가 바로 스티브 잡스의 연설에서 등장한 'connecting the dots'라는 표현입니다. 그간 참여한 프로그램들을 되돌아봤을 때, 각 활동 간 연관성이 떨어져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고민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방법을 깨달았고, 그것들이 모여 구성된 하나의 그림이 지금 저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 학우들을 보면, 입학부터 졸업까지 같은 캠퍼스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자 그려가는 그림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대학생살을 하며 거처간 모든 활동들이 본인이 만들어가는 그림을 구성하는 재료가 될 수 있고, 그렇기에 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활동일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값지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정한 목표를 정해두고 그것에 맞는 활동들만을 골라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목표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분야 저 분야에서 각종 경험들을 쌓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매 활동마다 열과 성을 다해 몰두하다 보면 졸업 시점, 그리고 그 이후 삶의 중요한 milestone마다 본인만의 멋진 그림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은(글경 17)학생 인터뷰,
학생성공상 학장상 수상



Q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17학번 박혜은입니다. 저는 2021년 8월 글로벌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지평 ESG 센터 전략그룹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2021년 학위수여식에 학생성공상 학장상을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학생성공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과, 저와 대학생활을 함께해 준 성균관대학교 학우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CFA Research Challenge

Q 외국계 기업에서 다양한 인턴십 활동을 하였는데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학 시절 경영 컨설팅 회사를 중심으로 인턴십 활동을 하였고, Bain & Company의 Information Services 부서 Intern 및 PwC Consulting의 Operation 본부 RA (Research Assistant)로 일했습니다.

Bain & Company Information Services는 Bain 내부의 리

서치 센터로, 조직 내 국내/국외 경영 컨설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컨설팅이란 무엇인지,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등 '컨설팅'이라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PwC Consulting의 Operation 본부는 고객, 공급자 등 경영 운영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곳에서는 Operation 본부 내 PI(Process Innovation)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팀에 구축되어 RA로 일하며,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에 대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의 외국계 경영 컨설팅 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은 저에게 있어 '경영 컨설턴트'라는 진로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Q 외국계 기업의 인턴 활동에 앞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였나요?

외국계 기업 인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우선 대학시절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를 위해 다양한 교내/교외활동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대표적인 교내 활동으로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알리미, 성균관대학교 인턴시브 워크숍,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챌린저 등이 있고, 교외 활동으로는 CJ

Young Creators와 대외 공모전 참가(재학기간 중 40회 이상)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을 수행하며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일하는 것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에서부터 기획, 총괄 등 하나의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 가지 큰 축으로 잡고 고민해보며 저는 기업의 경영을 돕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영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턴십을 준비하던 시기에는 위의 활동들을 Resume에 종합하여 보다 훌륭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Resume에는 '내가 잘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 작성했고, Work Experience, Extra Curricular Activities, Skills & Interest 등을 꼼꼼하게 기술하였습니다. Resume를 작성하게 되면서 제가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부가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Q 인턴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제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었을 때, 그리고 그 순간마다 매번 함께해 준 사수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람들과 업무 외적으로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많지 않지만,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팀에 기여가 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때 가장 보람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일을 배움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잘 이끌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는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어 뜻 깊었던 인턴십 생활이었습니다.

Q 학부시절 학교에서 참석했던 교내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재학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들로 복수전공 이수, 대학혁신과공유센터(舊 C-School), 공모전 참여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경영학 중에서도 기업 전략에 대해 배우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Technical Skill을 보유하게 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삼았습니다. 머신 러닝, 자연어 처리, 데이터 분석 및 기업 전략 연계 활동 등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실무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수행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혁신과공유센터에서 주관하는 Global Intensive Workshop, SKKU Global Challenger에 참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헌정보학,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등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과 교류하며 각각 3D Printing, 교통약자

를 위한 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연구하며 국내/해외를 탐방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경험들이 제가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큰 자양분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재학시절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다양한 공모전에 출전했습니다. CFA Research Challenge, 삼성 노트북 마케팅 공모전, SKKU GBA- KK FUND ESG Competition 등을 포함하여 40개가 넘는 공모전에 출전하였고 산업 지식을 폭넓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공모전을 출전하면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꼈던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컨설팅이라는 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Q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ESG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SG 경영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나아가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SKKU GBA KK Fund ESG Competition

Q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의 학우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본분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시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즐거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은, parkhyeeun0918@naver.com)

경영전문대학원 (EMBA) 소식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EMBA 김도현 신임학과장 인터뷰



☞ **안녕하세요. 학과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EMBA 학과장을 맡게 된 김도현 교수입니다. 전공은 Management이고, EMBA에서는 “조직설계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는 조직이론인데, 특히 조직학습과 의사결정, 조직변화와 혁신, 조직의 지위와 명성, 조직 간 네트워크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KAIST에서 경영공학 전공으로 학부와 석사를 나왔고,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10년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번 2022년부터 EMBA학과장님으로 선임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EMBA 과정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임 학장님들께서 워낙 틀을 잘 잡아 놓으셨고, 특히 지난 3년간 어려운 시기에 김상균 전임 학과장님께서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일이 수월해진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그만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부담감이 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과 동문, 교수와 직원 등 여러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여러분들의 넘치는 에너지가 저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온 힘을 다 해서 우리 EMBA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EMBA 운영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처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으로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조만간 일상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와 학교 본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우리 원우님들께서 보다 더 높은 질의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EMBA 프로그램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2년짜리 교육 과정이 아니라, 평생토

록 지식과 정(情)을 나누는 인적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EMBA 가족은 학생과 동문, 교수와 직원들로 구성된 대가족입니다. 이미 학생회와 동문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학교측에서도 EMBA 가족 구성원들 간에 더욱 끈끈한 가족애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과장님이 생각하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만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우리 성균관대학교 EMBA 과정을 설명하는 2개의 키워드는 전통과 혁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균관대학교는 조선건국 한양천도 이후 1398년 설립된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석사과정을 운영해왔고, 1998년에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아서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했으며, 2006년 9월 그 전통을 이어받은 EMBA 과정을 개설해서 2022년 봄에 111기 신입생을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우리 EMBA 프로그램은,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혁신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경영 전반에 걸친 핵심지식과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T자형 인재를 육성하는 정통 MBA 커리큘럼(기본영역 + 심화영역)에 더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융복합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커리큘럼(융·복합/글로벌학습 영역)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도 졸업생 청강제도를 이용해서 평생동안 언제든지 필요한 과목을 청강해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앞서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혁신을 자랑하는 우리 EMBA 프로그램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다른 아닌 우리 원우님들의 뜨거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업무와 일상 속에서 학업을 병행하는 것만 해도 녹록지 않은 일인데, 각종 학술 및 인적 교류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우리 원우님들의 열정은 단연코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도 반짝이는 재치를 발휘해서 안전하면서도 활발하게 학생회 및 동호회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중한 인연은 졸업한 후에도 이어지면서 우리 원우님들은 물론 우리 프로그램 전체에게 있어서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㉑ **학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과목은 무엇인가요? 이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며 실무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조직설계론”인데, 1학기에는 현선해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고, 2학기에는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에 구조와 프로세스를 형성하고 조직 외부 환경과 원활히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직설계입니다. 초기에는 조직의 공식적인 구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었지만, 그 후에는 비공식적인 구조와 조직문화, 그리고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조나 프로세스를 넘어서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학습역량 혹은 유연성과 민첩성 등이 강조되고 있지요.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조직설계의 기본개념 및 이론들을 습득하고,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 조직들의 사례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최고경영자나 임원급이 아니라면 과연 내가 조직을 설계할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과목에서 다루는 다양한 거시적인 관점들을 배우게 되면 기존의 일상 업무나 인간관계 등을 구조적 관점 혹은 프로세스적인 관점 등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실 것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본인의 역할이나 강점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㉒ **마지막으로 MBA 진학을 고민을 고민하는 예비 EMBA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초경쟁, 4차산업혁명, 글로벌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溫故知新(온고지신), 즉,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요. 옛것인 전통과 새것인 혁신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며, 이러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곧 공부이며 인격수양인 것입니다.

옛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이지 않은 옛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본질적이지 않은 새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혁신을 달성할 수 있고 시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선도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추구하는 EMBA 가족이 되셔서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교수·원우 인터뷰 모음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조셉킵 교수 인터뷰



경영전문대학원EMBA 111기
김영상 주임교수 인터뷰



EMBA 61대 총학생회장, 108기
김관희 원우 인터뷰



경영전문대학원 EMBA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경영전문대학원EMBA(원장 안희준)은 5월 14일(토) 인문사회 과학캠퍼스 대운동장에서 2022년 EMBA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 및 지연되어 3년만에 진행하게 되었다.

제61대 총학생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안희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하여 동문회장, 김도현 EMBA주임교수, 김정구 명예교수, EMBA 재학생 및 졸업생 및 가족 등이 참석하였다. 킹고응원단의 개막식 및 응원행사를 시작으로 안희준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축사, 졸업생 대표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날 EMBA 동문 약 1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단체경기 및 선수 선발 경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관희 경영전문대학원 총학생회장은 “200여명의 EMBA 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준비하는 입장으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다, 매일 일상이 가치 있는 순간이 되도록 EMBA 발전과 원우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2022학년도 후기 EMBA 신입생 모집 입학설명회 실시

지난 4월 16일(수) 오후 7시/27일(토) 오전 10시, 2번에 걸쳐 2022학년도 경영전문대학원 EMBA 후기 신입생 모집 입학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Webex)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신청자를 모집하여 실시했다. 27일(토)에 진행된 입학설명회에서는 김도현 경영전문대학원 EMBA 학과장을 비롯하여 재학생 원우, 행정실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먼저 김도현 학과장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은 전통과 혁신 2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석사과정을 운영해왔고 현재 신입생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에 소홀하지 않았다. 경영 전반에 걸친 핵심지식과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T자형 인재를 육성하는 정통MBA 커리큘럼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융복합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커리큘럼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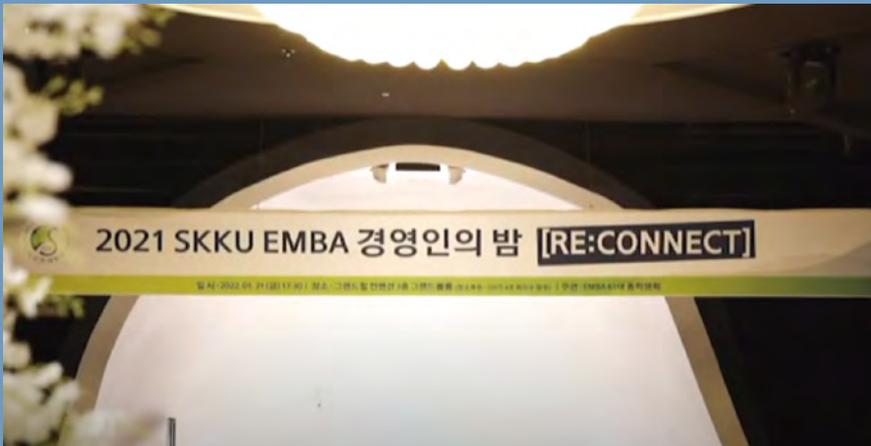
김도현 경영전문대학원 EMBA 학과장

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EMBA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재학생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현재 재학중인 원우가 참석하여 직장인으로서 겪는 학교 생활에 대한 경험담과 TIP 등 예비 신입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으로 만나는 경영대학의 모습

EMBA 경영인의 밤 RE:CONNECT학술포럼



영상 바로가기



경영대학원(IMBA) 소식

2022학년도 경영대학원 IMBA 후기 신입생 모집 입학설명회 개최

2022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IMBA 신입생을 모집하는 입학설명회가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난 4월 12일(토) 1차 입학설명회와 5월 7일(토) 3차 입학설명회는 경영관 2층에 위치한 Live Virtual Studio에서 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ZOOM) 참석을 하여 IMB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은형 37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하여 재학생 원우분들이 참석하여 재학생으로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2차 입학설명회는 역삼역에 있는 멀티캠퍼스 강의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번 2차 입학설명회는 3년만에 실시한 오프라인 입학설명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IMBA 김학균 학과장은 “그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입학설명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 지원자분들과 대면으로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IMBA는 토요일수업도 오프라인으로 더욱 많이 추진할 예정이어서 원우들의 학업과 네트워킹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하였다.



2022년 IMBA 경영학술 Summit & Welcome 39th

지난 3월 5일(토), 그랜드 워커히호텔에서 IMBA 경영학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37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행사로 39기 신입생 환영행사를 겸하였으며 신입생, 재학생 뿐 아니라 동문회에서도 많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39기 신입생 원우들을 위한 환영 세레모니와 함께 IMBA의 동호회 연구회 소개를 포함하여 학습가이드 등을 제공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오랫동안 오프라인 행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한 터라 이번 행사는 더 뜻깊고 의미가 있었다. 안희준 학생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학균 학과장 축사 그리고 총동문회에서 축사를 진행해주셨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진행

제37대 김은형 IMBA 총학생회장은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신입생 환영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준비과정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매우 보람있고 기쁘며, 앞으로 그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재학생을 위한 활동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경영대학원 IMBA 체육대회 실시

지난 5월 23일(토)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대운동장에서 '2022년 IMBA 한마음 DAY'를 개최하였다. 제37대 총학생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안희준 경영대학원장을 비롯하여 김학균 IMBA 학과장 등 교수님, IMBA 재학생 원우와 가족 및 졸업생 선배님들이 참석하였다. 어느때 보다 화창한 날씨와 함께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같은 분위기속에서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OX 퀴즈, 애드벌룬 경기, 전략줄다리기, 신발 양궁, 도전 골든벨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었고 선물 추첨 등도 진행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수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체육대회인 만큼 더욱 뜻깊고 즐거운 행사가 되었고, 모두가 더욱 한 마음 한 뜻으로 IMBA가 하나 된 시간이였다.



IMBA 37대 총학생회 대외협력부장, 37기 김응수 원우 인터뷰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상해에서 8년차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에서 약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마케팅, 영업, 전략기획 업무 등을 거쳐 지금은 중국 본부 IT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중국 내 공장과 연구소, 판매본부 등 각 사업장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에 관련된 각종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외부 침입에 대비해 회사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IT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혁신 활동 지원이나 디지털 법규에 따른 정보보안 관리, Risk 대응, 시스템 인증 취득관련 업무 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IMBA에는 2021년 초에 37기로 입학했고, 37기 해외 기대표를 거쳐 현재는 12대 해외 총원우회 부회장과 37대 총학생회 대외협력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Q IMBA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현업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경영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쌓기 위해 MBA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기회를 놓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Covid-19를 계기로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을 접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국 경쟁기업을 보면서 그간 머릿속에만 있던 기술경영에 대한 테마를 공부해보고 싶은 흥미를 느끼고 있던 차에, IMBA 신입생 모집 소식을 듣고 저에게 딱 맞는 기회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 업무와 삶 속에서 원우님께 IMBA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IMBA 수업을 통해 배운 다양한 지식이 업무수행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AI와 같은 최신 트렌드의 수업도 지속적으로 개설되고, 기존 수업의 콘텐츠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최신 사례를 많이 다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온

라인 강의의 아쉬움을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보충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배움에 대한 즐거움이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국내외 동문들과의 만남을 통한 네트워킹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세계 10여개국에 퍼져 있는 재학생 동기,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상 가족처럼 후배들을 보듬어 주시는 해외 원우 커뮤니티는, 해외 원우라는 자부심을 한층 돋궈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동호회, 연구회는 물론 해외 총원우회, 총학생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통과 교류, 봉사의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업에 대한 업무지원은 물론 최근의 상해 봉쇄 당시 보여주시는 해외 원우들에 대한 학과장님과 행정실, 지원실의 꼼꼼한 피드백은, IMBA인으로써의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할만큼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은 131명의 37기 중 한 명이자 39명의 37기 해외 원우 중 한 명이라는 것과 지금도 상해의 격리봉쇄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12명의 원우들과 쌓은 과분하면서도 감사한, 그리고 소중한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IMBA 원우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IMBA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좋은 분들과의 인연을 얻게 된 것도 좋지만 IMBA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 선배님, 후배님, 동기분들 덕분에 부족한 제가 조금 더 성장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처럼 어디든 다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때가 오면 한국과 해외 원우님들을 찾아 뵙고 회포도 풀면서 그간 아쉬웠던 정을 쌓는 시간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신 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핀테크MBA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MBA 교우의 밤 행사 개최

지난 5월 14일(토) 오후 7시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MBA 교우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만남이 어려웠으나, 철저한 방역과 안전 하에 재학생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안희준 학장, 한중호 학과장, 김대진 지도교수, 핀테크MBA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안희준 학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한중호 학과장의 격려사, 김대진

지도교수의 격려사와 함께 만찬이 진행되었으며 재학생의 학습 발전과 구성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핀테크MBA 학생회장 장종우 원우가 재학생 대표로 학장, 학과장, 지도교수에게 스승의 날 감사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MBA 신입생 모집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MBA는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핀테크MBA는 2022학년도 1학기 신설 과정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끌어갈 핀테크 전문가를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한 MBA이며 1년 6개월간의 학습을 통해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직장 생활과 학업 병행이 원활하도록 주중 저녁과 토요일에 수업이 개설되어 학생의 스케줄에 맞게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을 통해 미국 South Carolina대학에서 Business Analytics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대학 유일의 BK핀테크교육연구단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 최고 수준의 전임교원 중심 강의,



풍부한 장학혜택, 복수학위를 통한 글로벌 핀테크 전문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기간 및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문의 상담은 핀테크MBA 행정실(Tel.02-740-1682)로 연락하면 된다.

W-AMP 최고경영자 과정

2022학년도 W-AMP 23기 입학식 개최



지난 4월 7일 (목) 오후 6시,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에서 2022학년도 최고경영자과정인 W-AMP 23기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W-AMP 23기 신입생들의 입학 축하를 위해 신동렬 총장, 안희준 학장, 이동희 명예회장, 오원석 주임교수를 비롯한 내외빈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이태호 행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신동렬 총장 축사, 안희준 학장 축사, 이동희 명예회장 축사, 오원석 주임교수의 교육과정 및 일정 안내, W-AMP 23기 원우들의 자기소개와 W-AMP 총동문회 및 동호회 소개 후, 환영의 시간(사진 촬영, 입학선물 전달)의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탕을 둔 창의적 경영마인드를 제고함과 동시에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의 최근 사회·문화적 이슈를 다루는 차별화된 경영인 프로그램이다. W-AMP 과정, 입학문의 등 궁금한 사항은 W-AMP 최고경영자과정(Tel: 02-760-0300)로 문의하면 된다.



Wisdom Management, Wealth Management, Well-being Management의 3W를 상징하는 W-AMP(최고경영자과정)은 성균관대의 대표적인 CEO 과정으로, 성균관대 624년 역사에 기반한 인문학적 자산을 전달하고 동양철학과 역사·문화·예술에 바

W-AMP 23기 주말행사 안동/영주 문화탐방 개최

지난 5월 26일(토), 성균관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W-AMP에서는 안동-영주 지역 문화탐방을 진행하였다. 안희준 경영대학장께서 함께 참석하셨고 오원석 특좌 교수의 지도하에 W-AMP 23기 원우 및 배우자 등 총 27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산실이며 그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안동의

하회마을과 한국정신문화의 성지, 도산서원을 견학하고 영주 부석사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유교와 불교 문화, 퇴계이황선생과 유성룡 선생의 학문과 삶 등을 몸소 체험하며 배울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었던 주말행사를 3년 만에 다시 진행하게 되어 어느 때보다 뜻깊은 시간이었고 많은 원우들이 참석하여 23기 원우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한상만 교수, 한국경영학회 제67대 회장 취임



경영대학 한상만 교수가 2월 22일 열린 한국경영학회 정기총회에서 제67

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1년간이다.

한상만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경영학, 통계학 석사를 받고, 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상만 회장은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복잡계학회 회장, 한국마케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지속가능경영 포럼의 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경영학회는 경영학 분야 최초의 학회로 1957년에 창립되었으며, 경영학

관련 학회의 모학회이다. 40여개의 경영학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매년 8월 1000여 명의 경영학자가 참가하는 통합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6,300여명에 달하는 경영학회 회원들과 전라남도 여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의 구현(ESG, A Road to Stakeholder Capitalism)”이라는 주제로 40여 개 경영학 분야 학회와 공동으로 융합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수옥 교수, SKKU Teaching Award 수상



우리 경영대학의 심수옥 교수(마케팅 전공)가 SKKU Teaching Award 수상하였다. SKKU Teaching Award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선도한 교,강사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교육역량이 뛰어난 교,강사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고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동기부여를 진작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발전 기여도, 교육방법 혁신성, 교육에 대한 열정 등을 중심으로 우리 대학교육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SKKU Teaching Award 시상식은 5월 13일(금) 3시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20여명의 교수들이 선발되었다.

영상으로 만나는 경영대학의 모습

김정구 교수 퇴임 기념 영상



영상 바로가기



우리 경영대학은 핵심가치인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성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학년도 1학기에 신입교원 4명을 임용하였으며, 전공은 마케팅(1명), 경영정보(1명), 핀테크(1명), 매니지먼트(1명)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교원들로 초빙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경영대학 가족이 된 신입교원인 <경영정보 전공> 최애리 교수, <핀테크 전공> 임병화 교수, <마케팅 전공> 한지상 교수, <매니지먼트 전공> 조성희 교수를 만나 '주요 연구활동, 전공,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학생들이 성적에 연연하기 보다는, 대학시절동안 다양한 경험을

최앤젤라애리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에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전공 조교수로 임용된 최애리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카이스트 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e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2년 반 동안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올해 성균관대학교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의 전공은 경영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s)입니다. 특히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소비자들의 행동패턴 데이터를 통계분석 하여 수치화 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모든 소비자들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tracking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경영학적 시각으로 고민하는 것이 흥미로워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가질 예정이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경영학 학자로서 국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맡은 수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는 Business Analytics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데이터 collection, 데이터 분석 및 해석까지 전반적인 데이터 활용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교과서에 써 있는 글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실질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이 수업의 본질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아직 학생들과 많은 접촉은 어렵지만 앞으로 다양한 기회로 만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위에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꾸준히 경영학 학자로서 국내외 학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컨텐츠 플랫폼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행동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gender effect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구를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것이 매우 행복합니다. 이런 연구를 오랫동안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는,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존중해주고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수업을 가르치고 과제를 내주고 시험을 치게 하고 성적을 주는 교수보다,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학생들이 성적에 연연하기 보다는, 대학시절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대학교때 수업에서 얻은 학점보다 그 시절동안 겪었던 다양한 경험이 더 저에게 피와 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되길

임병화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경영대학 핀테크융합전공에 합류하게 된 임병화입니다. 재무분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 경력은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KAIST에서 수리과학과에서 금융수학을 전공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년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이후 수원대학교에서 금융공학대학원과 경제학부에서 9년 반 동안 근무하고 올해 성균관대학교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의 전공은 재무/핀테크(Finance/FinTech)입니다. 자산가격의 수요 측면인 개인 또는 가계의 소비와 투자 선택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출제한과 같은 예산 제약 또는 최저생계비용과 같은 소비 제약이 소비, 투자, 보험(연금), 노동, 은퇴 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신용분석,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와 NFT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경제성장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 금융으로 연결되어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어렵지 않게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서 깊고 글로벌 리더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성균관대 경영 대학에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수업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언제나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맡은 수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반대학원인 핀테크융합전공에서 ‘블록체인과파이낸셜어플리케이션’과 ‘Data-driven Credit Modeling’을, 학부에서는 ‘투자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블록체인과파이낸셜어플리케이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crypto-asset)의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측면의 활용 방안을 다룹니다. 비트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NFT 등의 실습을 통해 암호자산에 대해 직접 경험해보고 앞으로의 핀테크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큰 의미에서는 금융시장 및 금융환경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투자, 보험, 연금을 비롯하여 대출 제약 등을 포함한 가계의 재무활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계속해서 금융상품 및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하는 핀테크(FinTech)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혁신금융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자로 10년 가까이 지내왔지만 이상적인 교육자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본인의 능력을 200% 끌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모습이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성균관대 경영대학 학생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 생활을 떠올려보면 보다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곤 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같은 학과 친구나 선�후배들과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은 학교 밖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학 졸업 이후 무엇을 하며 살아 갈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막연하게 정해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괜히 남들에 비해 뒤쳐져 있는 느낌도 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고 평생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활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거나 학교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발견할 수 있고, 해외여행이나 외부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나 선�후배, 그리고 교수님은 평생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는 대학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뿌듯해 할 자격이 있습니다

한지상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학과에서 소비자 행동론을 연구하는 한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난 3년간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에서 조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감사하게도 성균관대학교의 일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마케팅은 사회에서 아직 충족되지 못한 니즈를 찾고 만족시키는 과정에 대한 학문입니다. 마케팅의 여러 세부 전공중 제가 전공한 소비자 행동론은 소비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선택을 내리고, 어떻게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이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학부때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사람들의 소비관련 의사결정 방식에 흥미를 느꼈고 이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게되다보니 박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연구활동 계속해서 좋은 논문을 publish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맡은 수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부 마케팅 관리와 대학원 방법론 세미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에서는 기업 마케팅 활동의 기본적 개요와 과정에 대해 배웁니다. 개인적으로 실습을 통한 학습을 중시하는 편이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각자의 팀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도록 하고 학기말에 발표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방법론 세미나에서는 마케팅과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론적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 페이퍼란 무엇인지, 연구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분석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R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지금까지 일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성대에서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새 프로젝트들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특히 consumer multitasking behavior와 sensory marketing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 토픽으로 새 연구 프로젝트들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UT Austin에서의 제 지도교수님 Andy Gershoff가 이상적 교육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제지도교수님께서도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 배울 것이 참 많은 분이셨습니다. 똑똑하고, 본인 연구와 티칭도 잘하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 연구 지도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학생의 정서적/육체적 건강도 염려하고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재차 제가 닦겠으니 칠판지우개를 달라고 하였고, 그러자 교수님께서서는 옆에 있는 다른 지우개를 주시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그림 함께 칠판을 닦자”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마 제 지도교수님은 기억하시지 못할 소소한 일이었겠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일화로 남았습니다. 제 지도교수님처럼 제 일도 잘하고 학생의 강점을 극대화시켜주고 항상 겸손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보다 더욱더 치열해진 경쟁과 그 속에서 고생하다 자신감을 잃는 학생분들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을 경험해본 여러분 한 명한 명은 지금 당장 각자의 위치를 떠나서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티칭을 해본 경험에 기반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더라도 외국 여행 또는 교환학생 경험을 쌓으며 건문의 폭도 넓히고 자신감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잘하고 있고 스스로에 대해 부듯해 할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보다 충분한 부분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감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분야에도 용기있게 도전해보세요, 신나는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조성희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봄 학기부터 성균관대학교 매니지먼트 전공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조성희입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산업/조직 심리학 전공으로 박사를 했고, 성균관대에 오기 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산업/조직 심리학과 조교수로 4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전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매니지먼트 전공 중에서도 조직행동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산업/조직 심리학과 조직행동 전공에 대한 관심은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인은 인생에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합니다. 그 모양은 제 각기 다르겠지만, 일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을 하면서 쌓아가는 경험은 개인의 정체성, 건강, 성공,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일과 노동이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공에 중요한 만큼, 이 분야에서 필요한 연구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일이 사람들에게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또 개인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신과 조직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조직행동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여러 방법 중, 조직 뿐 아니라 개인의 발전과 성공을 함께 고민하고 이루고자하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조직은 치열하게 살아남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People make the place.” 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 구성원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학생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연구자, 교육자, 그리고 동료로서 제 자리에서 열심히 즐겁게 본분을 다 하며, 앞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께서 맡은 수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직 안에서 개인은 팀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합니다. 조직행동은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원리로 서로 영향을 주며, 조직의 목표에 공헌하는지에 대한 학문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특성이나 태도, 동기부여, 의사결정, 팀워크, 갈등, 리더십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기본적인 조직행동 이론을 이해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적절한 해결 제시를 합니다. 이 모든 학습 및 응용 과정은 매니지먼트뿐 아니라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 연구의 목표를 간단히 줄이자면 ‘지속 가능한 직무 성과 관리’입니다. 개인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무 관리 뿐 아니라 비 직무 관련 영역에서도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유연한 직무 환경에서는 개인적인 영역과 일의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져 두 영역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work-nonwork interface)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세부적으로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ork stress and recovery, proactivity, personnel selection 과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끊임 없이 변하는 현대 근무 환경에서 개인이 새롭게 경험하는 감정과 사건을 이해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적응 과정을 돕는 연구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sustainable productivity and well-being 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전문 분야에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분야에 연구, 산학, 교육 등 다방면으로 공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즐거움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만끽하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강점을 찾아주고 함께 발전하고 서로 영감을 주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련의 열정과 노력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주는 에너지와 특권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은 훌륭한 교수님들, 그리고 학우 분들과 함께 마음껏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분야를 탐구할 수 있고, 꿈 꾸고 있는 일에 한 발짝 나아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고마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사회로 나가기 전, 성균관대에서 보내시는 시간 동안, 대학이 주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여러 강점들에 대해 이해하고, 더 개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invaluable potential에 대해서 충분히 믿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분야에도 용기 있게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나는,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동문회소식



성균관대 총동창회, 김성집(경영74)·전용주(경영74) 수석부회장 및 차동욱(명예교수) 총괄부회장 선임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38대 수석부회장으로 김성집(경영74)(주)베이스에이치디 회장과 전용주(경영74)(주)해시스넵 회장, 총괄부회장으로 차동욱(영문76) 모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김성집 수석부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총동창회가 24만 성균인의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교 발전에 있어 밑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해 총동창회의 발전방안 수립에 참여하고 단위동문회와 소통함으로써 총동창회장직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안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제31대부터 총동창회 임원직을 역임하며 동창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표해왔다.



전용주 수석부회장은 “폭넓은 동문들의 활동을 유입시켜 원활한 화합의 장으로서 총동창회가 기능(機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33대부터 꾸준히 총동창회 부회

장을 역임해오다 지난 37대부터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총동창회의 내실을 다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40여 년을 활발하게 공인회계사로 활동하였고, 모교 유학과 박사과정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함은 물론 <공자를 찾아가는 인문학 여행> 서적을 출판하는 등 인문학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동욱 총괄부회장은 총동창회 사무처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管掌)하게 된다. 2005년부터 총동창회 임원을 역임하며 동문사회의 활성화와 발전에 참여해왔던 차동욱 총괄부회장은 “소명의식을 갖고 총동창회가 모범적인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문들의 권익 확대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기간 중 「리더십」 분야에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대외협력처장과 국제처장을 지냈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국인사관리학회 회장, 대한경영학회 회장, 한국경영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오유식 경영전문대학원 동문회장, 제20회 자랑스러운 성균경영인상 수상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 CEO 모임인 성균경영인포럼(회장 전용주 (주)해시스넵 회장)은 5월 18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신라호텔 토파즈홀에서 ‘제20회 자랑스러운 성균경영인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성균경영인상’은 모교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성균경영인상 수상자는 오유식(경영대학원71기, (주)하나인터내셔널)대표이사, 조서윤(화학78, (주)다원엔컴퍼니) 대표이사 2명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신동렬 총장을 비롯하여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부금 소식



임경윤 회장(경영79, 한켐(주)), 제2경영관건립기금 3억 원 기부



임경윤 회장(경영79, 한켐(주))은 6월3일(금) 모교 총장실을 방문하여 「제2경영관건립기금」 약정액 5억원 중 1차로 3억원을 전달하였다.

기금전달식에는 신동렬 총장, 주영수 상임이사, 조준모(인)부총장, 이동환 법인국장, 안희준 경영대학장, 지성우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하였으며, 경영대학동문회에서 김동필 (주)넥스팜코리아 회장이자 경영대학동문회장, 이현구 (주)라까사웍스 회장, 송인만 경영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사장, 김원갑 현대종합상사 대표이사 겸 건봉장학회 이사장, 이증상 경영대학동문회 사무총장까지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신동렬 총장은 환영사에서 "모교와 경영대학을 위해서 거액을 기부해 주시는 임경윤 회장님의 큰 뜻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장님의 모교사랑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교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경윤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대학 선배들을 보며 학교에 보탬이 되고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부동문이 계속 나오고, 멘토장학금도 다시 연결해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 동문회장은 축사에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과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 써주신 총장님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모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건립기금 모금에 흔쾌히 5억이라는 거금을 기부해 주신 임경윤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경영대가 학교발전을 위해 동참하고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임경윤 회장은 오는 10월에 2차 2억원을 추가 기부할 계획이다.



기부금 소식



<제2경영관 건립추진>



경영전문대학원(EMBA) 107기

제2경영관건립기금
300만원 기부



김원갑(경영72)
현대종합상사 대표이사

경영대학 장학기금
500만원 기부



박명섭 교수

제2경영관건립기금
150만원 기부



신길원

제2경영관건립기금
1천만원 기부



신영석 교수

경영대학발전기금
325만원 기부



이증상(경영74)

제2경영관건립기금
5백만원 기부



임경운(경영79)
한캠(주) 회장

제2경영관건립기금
3억원 기부



정영화(경영74)
영진공업 대표이사

경영대학장학기금
250만원 기부



최 관 교수

제2경영관건립기금
380만원 기부

현재 경영대학 동문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금 납부자(100만원 이하, 가나다순) : 강한운, 김성태, 류시원, 박영규, 오병욱

〈2022년 1월~ 현재까지〉

SKK BUSINESS SCHOOL

VISION 2030

GLOBAL INNOVATIVE LEADING
BUSINESS SCHOOL

50
th

GLOBAL

10
th

ASIA

1
st

KOREA

MISSION



Student Success with AI Interdisciplinary Talents

- Python Coding / AI
- Global Experience with Exchange & Internship
- Capstone Projects / I-core Courses



R&D for Management Knowledge

- Cross Management
- Global Collaboration
-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Solve Management Problems

성균관대학교
SUNG 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http://biz.skku.edu>